뜨개물로 감싸여진 나무가 신기하다.

원색으로 다양한 색깔이 같이 표현되어 있어서 오방색처럼 보이기도 한다.

뜨개질된 걸 만져보는 사람도 종종 보였다.

지진 옥외 대피장소 표지판이 있다.

근처에는 초등학교와 관련된 가게들이 잔뜩 있다.

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문구점 피자가게 분식집. 다시 초등학생이 된 것 같았다.